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교보문고 도서·음반 구매하세요”
 대한항공이 교보문고와 마일리지 사용 제휴를 시작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은 1400마일로 교보문고(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바우처로 도서 뿐 아니라 eBook, 음반 구매도 할 수 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교보문고에 접속 시 구매 금액 1000원당 스카이패스 2마일 적립도 가능하다.

한화 김동선 본부장, 공격적 행보 주목

프리미엄 먹거리 강화... ‘갤러리아’ 독립 앞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이 공격적인 경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갤러리아가 추구하던 프리미엄 리테일을 더욱 강화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를 국내에 들여오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선한 맛 추구 ‘파이브가이즈’ 도입 스페인 현지서 ‘이베리코’ 농장 운영 친환경 사육 통해 최상위 품질 유지 내달 1일 갤러리아 인적분할 단행

●신선하고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 소개

지난해 10월 성사시킨 미국 3대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도입이 신호탄이었다. 김 본부장은 이 브랜드 도입을 위한 초기 기획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파이브가이즈는 1986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모든 음식은 주문에 따라 신선한 재료로 조리된다. 파이브가이즈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것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국내 첫 매장은 울산광역시 오천읍에, 향후 5년간 국내에 15개 이상 매장을 열 계획이다.

미국 현지의 맛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을 중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파이브가이즈는 한국 진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김 본부장이 창업주를 수차례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며 유치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파이브가이즈

김동선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이 공격적인 경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브가이즈 국내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식에서 윌리엄 피쳐 파이브가이즈 인터내셔널 총괄 부사장(위 사진 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 본부장, 한화가 운영하는 스페인 세비아의 이베리코 농장에서 사육 중인 100% 순종 이베리코 흑돼지. 사진제공 |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즈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김 본부장은 직접 미국에 수차례 오가며 창업주와 지속적인 신뢰를 쌓았으며, 사업 계획을 담은 브리핑을 직접 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친환경 순종 이베리코’ 시장 공략에 나섰다.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 참석 후 곧장 스페인으로 향한 김 본부장은 세비아 북부 시에라 모레나 국립공원 내 이베리코 농장을 찾았다.

한화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으로, 현재 스페인 현지에서 이베리코 농장을 직접 하는 국내 기업은 한화가 유일하다. 사육 중인 돼지는 100% 순종 이베리코 흑돼지로 도토리를 먹여 방목한 최상위 ‘베요타(Bellota)’ 등급이다. 베요타는 스페인어로 도토리를 뜻한다.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이베리코 중 베요타 등급은 전체의 7% 가량에 불과하며 스페인 이베리코협회 인증을 받아

야한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돼지들의 사육 환경과 품질을 꼼꼼하게 챙겼다. 농장 면적은 축구장 1400여 개 크기에 달하지만 품질 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돼지는 수백 마리로 제한했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사육환경을 고수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200년 수령의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먹고 살을 찌우 올레안산 함유량이 풍부하고 풍미가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을 하반기 이곳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이베리코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를 국내시장에 적극 들여오겠다는 김 본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3월 1일 갤러리아 인적 분할 예정

갤러리아의 독립을 통한 사업 선택과 집중도 김 본부장의 올 상반기 중요 과제로 꼽힌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9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갤러리아 부문에 대한 회사 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3월 1일 인적 분할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는 분할 후 그룹의 지주사인 (주)한화의 자회사가 된다. 2021년 4월 한화솔루션에 합병된 지 2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회사 측은 “최근 급격한 대외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존 백화점 사업은 프리미엄 전략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리테일 사업 다각화와 신규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 등으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GU+, 디도스 대비 위기관리 TF 가동

4일 디도스로 서비스 장애 발생... “고객 불편 최소화”

LG유플러스가 디도스(DDoS)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위기관리TF를 가동하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함께 방어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4일 오후 두 차례 디도스로 추정되는 대용량트래픽이 발생해 지역에 따라 서비스 장애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부문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성했다. 용산사옥의 전사 위기대응 상황실에서 CEO가 마곡, 안양 등 전국 주요 통신국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실시간으로 각 현장 조치를 통해 고객불편 현안과 기술적 조치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갖췄다.

상암·마곡사옥에는 200여 명의 네트워크부문 관제 및 운용, 정보보호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추가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 공격 차단 및 트래픽 우회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전사 위기관리TF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통해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응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별관으로 확장 이전



바른세상병원이 수족부센터를 별관에서 확장 이전(사진)했다. 수족부 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적의 진료 환경 구축과 쾌적한 외래공간을 위해 수족부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기존보다 치료실과 대기 공간을 넓히고 수납창구와 진료실, 검사실 간 이동을 최소화했다. 전담 X-레이, CT, MRI 등 영상검사 시스템 구축 및 세부검사시스템도 강화하고 진료실을 재활물리치료실과 같은 층에 배치했다. 바른세상병원은 무릎, 어깨 등의 관절 질환과 스포츠 손상 질환 전문인 관절센터와 별도로 수부(손)와 족부(발) 분야 전문 의료진의 수족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율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자연치유 어려운 ‘퇴행성 관절염’
로봇 인공관절 수술, 환자 만족도 ↑

관절은 근육과 달리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 없어진다. 특히 보행이나 운동을 할 때 무릎을 지탱해야 하는 관절인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척추관절 등은 다른 관절보다 더 빨리 닳고 퇴행하는 특성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연골(물렁뼈)과 인대 등이 손상되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이 한번 시작된 뒤로는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말기로 진단되면 수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행히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은 말기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일상 복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수술 예후와 환자 만족도가 높아 고려해볼 만하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은 뚜렷하다. 먼저 1대1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수술 전 촬영한 X-ray 이미지를 3D로 전환하여 로봇에 대해 사전에 환자의 뼈 모양, 형태, 위치, 각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가상 수술로 수술 방법을 찾는다.

수술 과정에서 정확도도 높다. 0.5mm 단위로 움직이는 로봇 팔로 인공관절이 삽입될 공간을 정확히 절삭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인대와 신경 손상도 예방한다. 이처럼 정밀한 뼈 절삭으로 불필요한 손상을 줄이면 감염, 출혈, 통증이 적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 복귀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인천 저스트병원 조병규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



“민관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내정

폭넓은 안목·안정적 경영능력 기대
임 내정자 “조직혁신·새 문화 정립”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됐다.

1959년 전남 보성 출신인 임 내정자는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증권제도과장, 금

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NH농협금융 회장을 지내다가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른 바 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NH농협금융의 회장직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라며 “우리금융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임추위 위원들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전반에 폭넓은 안목을 갖춘 임 내정자가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과감히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채신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임 내정자는 “조직혁신과 새로운 기업 문화 정립을 통해 우리금융금이 시장, 고객, 임직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 내정자는 이달 정기이사회에서 후보 확정 결의 후, 3월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hy, 팜에이트와 업무협약... “고품질 채소로 샐러드 라인업 확대”

무농약 수경재배한 채소 제공 받아
“신선제품 확대로 고객 만족도 UP”

제공받아 신선식품 카테고리 확대한다. 실내에서 수경재배로 수확해 미세먼지와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주고, 무농약 제품으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특히 프리미엄 샐러드 제품 라인업 확대에 집중해 원물 채소 단품인 ‘팜채소’와 샐러드용 모듬 채소 ‘그린 믹스 샐러드’를 선보인다. 향후 토포 샐러드와 밀키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hy 샐러드는 지난해 누적 판매량 140만 개를 돌파했다. 2020년 대비 약 97%, 2021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프레시 매니저를 통한 배송 강점 및 가성비와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접목된 결과로 분석된다.

신승호 hy 멀티M&S부문장은 “신선제품 생산 및 유통이 강점이 두 회사가 협업하게 됐다”며 “신선채소 공급망을 바탕으로



신승호 hy 멀티M&S부문장(왼쪽)과 강대현 팜에이트 대표. 사진제공 | hy

로 신선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